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延邊地域의 성곽 분포 현황을 중심으로-

이성제 1)

目 次

- I. 머리말
- II. 성곽 분포의 현황과 문제제기
- III. 고구려의 平地城 運用과 발해
- IV. 고구려 山城과 발해의 재이용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의 중국 吉林省 延邊地域은 고구려가 장악하기 전에는 沃沮人의 활동 무대였고, 고구려 멸망 뒤에는 발해가 나라를 세우고 海東盛國의 근거를 둔 곳이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옥저 지역지배의 성격이 온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고구려가 닦아놓은 터전을 발해는 어떻게 계승하였고 발전시켜나갔는가에 대한 이해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지방 통치는 성을 단위로 이루어졌고, 발해 5京 15府 62州의 지방통치제도 그 근간은 성에 있었다고 믿어진다. 고구려와 발해 시기의 연변 지역지배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성곽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성곽에 대한 대개의 이해는 國內城과 遼東 지역 등 왕국의 정치군

1) 동북아 역사재단

사적 중심지역에서 보이는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지방 차원의 성곽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는 않다. 더욱이 연변 지역의 성곽에 대한 조사 연구는 요동이나 압록강 중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조사와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검토의 초점도 연변 지역의 성곽 전반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많은 결정을 바란다.

II. 성곽 분포의 현황과 문제제기

고구려와 발해의 성 운용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변 지역의 고구려성 분포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조사 연구를 정리하여 대체적인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가 주목된다. 田中俊明의 「高句麗の山城」(「高句麗の歴史と遺跡」, 1995)와 鄭永振의 「延邊地域の城郭에 대한 研究」(「高句麗研究」 8, 1999)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주로 살펴보려는 이 두 연구는 「文物志」 등의 조사 자료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실제의 현지 조사를 진행해 온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²⁾

먼저 두 자료(표 1과 2 참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구려성으로 편년되는 성곽의 수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田中俊明은 이 지역에 26개의 고구려성이 남아 있다고 보았으나, 鄭永振은 고구려의 것임에 분명한 성곽은 10개라고 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田中俊明의 자료는 山城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平地城은 興安古城 한 곳에 불과하다. 물론 본문에서는 河龍古城·東興古城³⁾·溫特赫部城·石頭河子古城⁴⁾ 등에서 고구려의 기와가 나왔다는 보고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이들 평지성도 고구려성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고구려성일 가능성인 높은 土城屯古城⁵⁾을 누락하고 있는

2) 이 점에서 관련 연구가 이 두 견해의 입장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역시 연구내용의 수용 여부와는 별도로 두 연구들 중에 커다란 지견을 얻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밖에도 성곽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王禹波·王安北의 編著(王禹波·王安北 編,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下, 哈爾濱出版社, 1994)와 방학봉의 저작들(방학봉, 「발해성곽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2002 및 同, 「발해의 주요 유적을 찾아서」, 2003, 연변대출판사 등)이 도움을 준다.

3) 田中俊明, 「高句麗の山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1995, p.389.

4) 田中俊明, 앞의 글, pp.383~388.

5) 문물지의 보고에는 출토유물로 보아 이 토성이 발해의 성곽임을 알려준다고 하였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主編, 「龍井縣文物志」, pp.53~54, 1984). 그러나 방학봉과 정영진은 출토유물을 근거로 고구려시기에 사용된 토성이며 발해가 그것을 연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등, 이 지역의 성 운용방식을 산성 위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개의 평지성이 고구려시대의 것이라고 한다면, 산성만으로 고구려의 이 지역 지배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산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평지성의 분포 양상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고구려가 평지성을 운용함에 있어서 遼東·玄菟·樂浪郡 등의 郡縣城을 재이용한 사례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비록 그것의 분포지역이 과거 군현의 지배지역이었기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연변지역과 동일 선상에서 다룰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고구려의 성 운용체계에 있어서 평지성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기에는 족하다. 이 점에서 평지성의 분포와 산성과의 연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⁷⁾

한편 鄭永振은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유물이나 주변 유적이 없는 경우 성곽의 초축 시기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⁸⁾ 이러한 견지에 따라 그는 연변 지역 소재의 성곽 108개 중 10개가 고구려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고구려가 쌓은 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구려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고구려성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서 성곽의 시대를 확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에 비해 고구려성의 분포 밀도가 너무 희박할 뿐 아니라 산성은 단 2개에 불과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말하여 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연변지역의 성곽 분포는 산성이 주류를 이룬 고구려성의 일반적 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추가의 가능성을 좀더 고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성곽 분포의 현황에 따른다면 상당 수의 성곽은 발해가 이 지역에 들어선 뒤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⁹⁾ 발해 이전의 성곽 수효를 최소 10개라고 보는 견해는 물론이고 20여 개 소라고 보는 경우라 해도, 발해시대에 들어서 이전에 비해 최대 7배에서 2배 이상의 성곽을 새로 쌓았던 셈이다. 분포 양상을 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인 고구려시대와는 달리 발해시대에 이르면 이 지역의 성곽 분포는 매우 조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변지역의 주요 거점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교통로에는 성곽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던 셈이다.

이 가운데 산성이 상당한 수효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간다. 산성은 통치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사적 기능이 강한 성곽이다. 이러한 산성을 교통로 상의 주요 거점에서 거의 예외없이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시 발해가 산성의 방어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발

6) 尹龍九, 「고구려의 平地城과 漢郡縣城 운용」, 『高句麗研究』 8.

7) 田中俊明은 고구려가 한군현의 평지성을 활용한 문제들 언급한 뒤, 연변지역의 평지성은 일부러 토성을 쌓은 것이라고 하고 달리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田中俊明, 앞의 글, pp.403~404).

8) 이와 관련하여 정영진은 유물이 없어 연대고증에 어려운 평지성과 대개의 산성을 모두 고구려시대의 성곽으로 판단한 王馬波·王安北의 자료(王馬波·王安北 編著,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 哈爾濱出版社, 1994)를 비판한 바 있다(鄭永振, 앞의 글, 389쪽).

9) 정영진의 분류표에 따르면, 고구려 성곽이 10개, 발해의 것이 70개, 요금시기의 것이 28개로 파악되고 있다.

해가 舊國에 나라를 세운 이래 이 지역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상의 주요 요충지에 성을 쌓아 방어력을 높였던 사례는 고구려의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겠다. 고구려가 遼東을 둘러싸고 중국 세력과 대결하던 시기, 교통로의 곳곳에 성을 쌓아 적의 침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했던 까닭은 적과 대치하고 있던 최전선으로부터 왕국의 중심지 國內城까지의 거리 문제 때문이었다. 즉 짧은 중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구려는 방어시설을 증첩시켜 중심을 두텁게 하였던 것이다.¹⁰⁾

이에 비해 발해는 唐의 동방 경략 거점이라 할 수 있는 營州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발해는 건국시기부터 당에 대해 넓은 중심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당과 발해 간의 陸路가 突厥에 의해 두절되어 있던 상황이고 보던¹¹⁾ 당의 위협은 직접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로부터 발해가 당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양국 간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연변 지역에 많은 산성을 새로 쌓아 방어선을 두텁게 만들어가야 할 이유가 되기는 부족한 것이다.¹²⁾

그렇다면 발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으로 남는 것은 발해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던 黑水靺鞨이다. 흑수말갈이 당에 접근하고 당이 이를 이용하여 발해의 배후를 위협하려 했던 시도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³⁾ 이로 인해 발해 貳王이 흑수말갈 토벌에 나섰던 것으로 보아서도, 발해가 흑수말갈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흑수말갈에 대해 발해의 중심은 짧다고 할 수 있기에 발해는 짧은 중심을 보완하고자 방어시설을 증첩시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해와 흑수말갈의 관계에서 守勢에 몰려 있던 쪽은 흑수말갈이었다. 흑수말갈이 당과 연결을 꾀하려 했던 까닭도 아마 발해의 성장세에 몰려가고 있던 절박한 처지에서 취한 자구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발해가 흑수말갈의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그것은 흑수말갈과의 接境 일대에 한정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온당하다. 흑수말갈은 발해가 연변지역 주요 교통로 곳곳에 산성을 쌓아 방어력을 강화해야

10)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林超煥의 연구가 있다(林超煥, 「高句麗前期 山城 研究」, 「國史館論叢」 82, 69~72쪽).

11) 「舊唐書」 卷 199下, p.5360, “曷契丹及奚盡降突厥 道路阻絕 則天不能討 祚榮遂率其衆東保桂婁之故地 據東牟山 築城以居之”

12)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거란에 대비하여 발해가 부여의 옛 땅에 부여부족을 두고 여기에 정예군사를 배치해 두었다는 기록(「新唐書」 卷 219, p.6182, “扶餘故地爲扶餘府 常屯勁兵 扞契丹 領扶仙二州”)은 발해가 구축한 방어체계의 일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13) 「舊唐書」 卷 199下, p.5361, “(開元)十四年 黑水靺鞨遣使來朝 詔以其地爲黑水州 仍置長史 遣使鎮押 武懿宗謂其驛曰 黑水途經我境 始與唐家相通 舊諸突厥吐屯 皆先告我而去 今不計會 卽諸漢官 必是與唐家通謀 腹背攻我也”

할 위협세력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연변 지역의 성곽 분포가 발해시대에 들어서 갑자기 조밀해졌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나아가 舊國과 中京 그리고 東京의 신설과 遷都로 인해 王都의 부대 시설이 늘어났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연변지역 교통로의 주요 거점마다 산성이 들어서 있는 현상이 설명될 수는 없다.

이처럼 현재 정리된 자료가 연변 지역의 시대별 성곽 분포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다면, 이들 토대로 이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을 논한다거나 발해의 방어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진다. 도리어 이러한 문제로 다가가기에 앞서 현재의 자료에서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성곽의 축성 시기를 판단하는 데 새로운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고구려의 平地城 運用과 발해

고구려는 교통로 상의 주요 지점에 성을 쌓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는 한편 지역 지배의 근거지로 활용하였다. 국내성에서 遼東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이나, 吉林市 방면의 北夫餘로 나아가는 경로 상에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세워진 고구려성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보아 연변 지역의 고구려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교통로 상의 입지라는 조건은 매우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의 이 지역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거점은 柵城이었다.¹⁴⁾ 이 점에서 책성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성에서 책성 방면으로의 길은 크게 두 줄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白頭山の 북쪽을 통과하는 길로 渾江 유역에서 靖宇·撫松을 거쳐, 松花江의 상류 二道河를 따라 동북으로 가서 安圖 부근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백두산을 남쪽으로 지나쳐 가는 길로 낭림산맥을 넘어 咸興으로 가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길이다.¹⁵⁾

이 가운데 현재의 성곽 분포 양상과 관련하여 渾江에서 安圖에 이르는 길을 주목하

14) 책성을 어느 성에 비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둘러싸고 城子山城(河龍古城 등을 포함)·薩其城·溫特赫部城 등의 3곳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관한 논고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朴直爽, 「高句麗柵城遺址考」, 『朝鮮中世紀研究』, 延邊大學出版社, 1988.

嚴長祿·鄭永振, 「對主要高句麗古城의 考察」, 『延邊大學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89.

朴直爽, 「高句麗柵城遺址再考」, 『第七屆韓民族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高麗學術文化財團, 1994.

李宗勛, 「高句麗 柵城遺址 一考」, 『선사와 고대』 10, 1998.

方學鳳,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 『京畿史學』 3, 1999.

15) 전중준명, 앞의 책, pp.388~389.

고 싶다. 이 지역의 유적 분포는 조사가 미흡하여 배치의 양상을 자세히 알 수 없고, 교통이 발달한 현재에도 盆地인 撫松에서 東進의 경로는 산간지대를 거쳐야만 한다.¹⁶⁾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성을 기점으로 책성에 이르는 교통로의 세부 경로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교통로의 대체적인 경로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발해시기 이른바 ‘鴨綠-朝貢路’의 존재 때문이다.

발해의 ‘압록-조공로’는 中京을 기점으로 和龍市 西城鎮 서북쪽의 獐項古城을 지난 뒤 古洞河 물줄기를 따라 서북쪽으로 나아가 新合鄉에 이르고 여기에서 高寶古城(필자 주: 안도시 만보진 소개)과 永慶과 松江鎮을 지나 寶馬城(안도시 二道白河鎮 소개)에 이른다. 여기에서 다시 露水河(무송현 소개)·泉陽(무송현 泉陽鎮)·撫松縣 소재지를 지나 神州(현재의 臨江市 소개)에 도착,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 황해로 나아가는 경로였다.¹⁷⁾

‘압록-조공로’는 발해가 당과의 교류에서 널리 활용하던 교통로¹⁸⁾였지만, 발해시기에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경로는 아니었다. 神州에서 압록강을 따라 황해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고구려 이래의 압록강 水路 교통을 활용한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¹⁹⁾ 또한 발해시기 中京 뿐 아니라 東京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항상 안도를 거쳐 무송방면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그 이전 시기에도 이 길이 주요한 통로였다는 점을 짐작케 해준다. 이로 미루어 고구려 시기에 이미 국내성을 기점으로 책성에 이르는 교통로가 구축되어 있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발해는 ‘압록-조공로’를 운용했다고 보여진다. 즉 발해의 ‘압록-조공로’의 일부 구간은 고구려 시기 국내성과 책성을 연결하던 교통로와 겹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구려와 발해 시기의 교통로가 겹쳤을 가능성이 높은 안도 구간의 성곽 분포 양상을 살펴 보자. 무송의 산간지대를 빠져나와 만나게 되는 평야지대가 바로 안도 구간이어서 산간지대의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연변의 중심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유적이 安圖市 東溝 유적이다.²⁰⁾ 동청 유적은 무덤떼와 성터 그리고 건축지로 이루어진 복합유적인데 이 곳에서 기단식 격석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계단식 방단석광격석

16) 정우와 무송 그리고 안도 진입 직전까지의 경로는 대강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17) 방학봉, 「발해 시기 연변의 네 갈래 교통로에 대하여」, 『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1991, 222~223쪽, 賈耽의 『道里記』에서 인용된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新唐書」地理志 7.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散島·末島·島湖島三百里 北渡島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二百里 東傍海壖 過黃泥浦…… 自鴨綠江口舟行百餘里 乃小舫泝流東北三十里至泊汜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里 至丸都縣城 故高句麗王都 又東北泝流二百里 至神州 又陸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王所都 ???”

18) 기점이 동경 용원부가 있던 혼춘으로 바뀌더라도 동경에서 중경까지의 구간이 추가될 뿐, 중경 이후의 경로는 종래의 압록-조공로였던 것이다.

19) 賈耽의 『道里記』 내용 가운데, 황해로부터 압록강 하류를 거슬러 올라가 국내성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압록강 상류로 나아간다는 경로는 고구려가 운용하던 압록강 수로 교통로였음은 강의 대안에 남아 있는 관애와 산성 그리고 평지성의 존재로도 알 수 있다.

20) 연변박물관,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묘(階梯式方壇石墳積石墓)로 기재되고 있는 이 무덤들은 모두 4기이다.²¹⁾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무덤이 8호 무덤으로 동서 길이 8m, 남북 길이 7.7m, 높이가 1m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축조 방식은 갠 돌로 무덤 틀레를 쌓고 그 안에 강돌을 70cm 정도의 두께로 깔고 그 위에 다시 무덤칸을 쌓았다. 표면에 드러난 기단은 3단으로 현재에도 기단부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덤의 호석으로 추정되는 큰 돌도 볼 수 있다. 8호무덤처럼 규모가 큰 무덤으로 3호 무덤이 있다. 여기에서 10m 떨어진 곳에 1호와 2호 무덤이 있는데, 약간의 부장품이 1호 무덤에서 나왔다고 한다.

<동청 유적의 제8호분 평면도>

이들 격석총²²⁾의 조성 연대와 관련하여 조사자들은 발해 초기의 무덤으로 파악하였지만, 과연 발해의 묘제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 든다. 격석총과 석실봉토묘가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덤 구역에는 발해 시기의 무덤 뿐 아니라,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의 무덤들도 함께 조성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동청의 지리적 조건이다.

동청은 高麗古城에서 서남방에 있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서 4km, 남북 2km의 작은 하곡평지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松花江의 지류의 하나인 古洞河가 동북에서 서남으로 흘러가며, 동북방향에서 오는 安圖-松江 도로와 서북쪽 敦化 방면에서 오는 돈화-松江 도로가 이 곳에서 교차된 후 남쪽의 송강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청은 고구려 시기에 있어서도 국내성과 책성 간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교통로상의 요지였음에 틀림없다. 고구려의 전형적 무덤양식인 기단격석총이 이곳에 조성된 배경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기단격석총의 존재로 보아, 동청촌의 동쪽에 있는 건축지나 그 동편에 있는 성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간다. 조사자들은 지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발해 유적이라 단정짓고 있지만, 이곳이 고구려 이래의 교통 요지였다면 그 유적들과 고구려의 관계도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격석총을 조성한 이들의 거주지 및 활동공간이 상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고구려의 평지성으로 확인되고 있는 中坪古城²³⁾에서도 발해시기의 절간자리와 무덤떼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21) 조사자들은 이 무덤들이 고구려의 기단격석총과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석실봉토묘(4·5·6·10·11·12·13호)와 함께 발해 초기의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22) 방화봉은 이들 무덤이 연변지역에서 최초로 보고된 격석총이라고 하였으나(방화봉, 「발해의 주요 유적을 찾아서」, 연변대출판사, 2008, 168쪽), 동 보고서에는 용정의 水南무덤떼와 화룡 北大무덤떼에 돌기단 무덤이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다(연변박물관, 앞의 글, p.41). 관련 자료는 烏山富一·藤田亮康, 「間島省古迹調査報告」(滿州國古蹟古物調査報告 第9編), 滿州帝國 民生部, 1941, pp.27~29 및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縣文化館, 「和龍北大渤海墓清理簡報」, 「東北考古與歷史」, 1982년 1기.

23) 방화봉, : 정영진, 앞의 글.

또한 고구려가 동청 유적과 유사한 입지에 평지성을 축조한 사례도 찾아진다. 琿春市 板石鄉 太陽村 潘家溝屯에서 동남쪽으로 1.5km 떨어진 石頭河子 古城이 그것이다. 석두하자 고성은 혼춘에서 중·러 국경지대인 長岑子를 넘어 현재의 러시아 포시에트만에 이르는 동토 상에 자리잡고 있다. 이 경로는 발해의 日本道가 나가는 구간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석두하자 고성은 주요한 교통로 상에 세워진 평지성인 것이다.²⁴⁾

유사한 사례를 좀더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석두하자 고성은 앞에서 본 동청 유적의 성터를 통해 얻게 된 이해를 재확인시켜준다. 즉 고구려가 책성과의 연결을 위해 운용했던 교통로가 있었으며, 그 경로 상에는 평지성이 축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로보아 연변지역의 성곽 분포 현황은 고구려 시기의 교통로와 관련하여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확대는 일단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 고구려가 연변지역에 구축한 교통로와 평지성 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평지성이라고 하더라도 석두하자 고성은 832m이고 동청 유적의 성터는 287m²⁵⁾에 불과하여, 지역 지배의 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협소한 감이 없지 않다.²⁶⁾ 郡縣城에서 유래하여 지역 거점으로 기능했던 고구려의 평지성이 대개 1km 이상의 규모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면에서 책성 교통로 상에 축조된 이들 평지성은 지방 지배의 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규모로 보아 이들 평지성이 교통로를 제압하려는 군사적 목적에서 축조되었다고는 여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압록강 상류의 對岸에 위치한 樺皮甸子古城·夾皮溝城址·東馬城址 등의 평지성이 참고가 된다.²⁷⁾ 이들은 현재 臨江市 동남쪽, 압록강 상류 대안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는 200m 전후의 方形 평지성으로 입지조건과 규모로 보아 수로 교통의 역참 시설임에 틀림없다. 수로와 육로라는 점만 다를 뿐, 고구려가 교통로 상에 축조한 비슷한 규모의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석두하자 고성 등은 책성까지의 육로 교통상의 역참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 시기 국내성과 책성 간의 연결을 위해 마련되었던 교통로가 발해의 ‘압록-조공로’와 ‘일본도’에서 재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발해시대의 다른 교통로 예들 들어 삼경성과 중경 간의 연결 구간 등도 이러한 유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교통로 상에 분포된 관련 성곽들과 건축지 유적의 사용 시기를 발해로 한

24) 문물지에서는 발해 시기의 주요한 교통로 상에 위치한 주요 역참이자 군사요새라 평가하고 있을 뿐,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琿春縣文物志』, 1984, pp.44~46). 반면 방화봉은 성 안에서 나오고 있는 고구려 기와조각들로 보아 고구려 시기에 쌓아 발해가 연용한 평지성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방화봉, 앞의 책).

25) 동쪽과 서쪽의 성벽길이가 각각 75m, 남쪽 성벽이 67m, 북쪽 성벽이 70m라고 한다.

26) 한점 둘레 길이가 1,000m를 넘는 평지성도 있다. 延吉市 북부에 있는 興安古城(1,800m)·龍井市 八道鄉의 土城屯古城·龍井市 德新鄉의 仲坪古城(1,600m)·琿春市の 溫特赫部城(2,270m) 등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27) 田中俊明, 앞의 책, p.391.

정것지 말고 조사 자료의 내용에 대해 좀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본래 연변지역은 옥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이들의 주된 거주공간은 하천 부근의 평지나 둔덕에 자리잡고 있었다.²⁸⁾ 이런 거주지는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을 것이기에, 고구려시대에서도 정치경제적인 중심지로서 활용되었을 법하다. 앞에서 본 교통로 상의 고구려 평지성은 물론이고²⁹⁾ 여기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中大型의 평지성³⁰⁾들이 옥저인의 거주지에 세워진 성곽들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들 성곽의 초축 연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IV. 고구려 山城과 발해의 재이용

연변 지역의 성곽 분포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長城이다. 현지에서는 ‘邊牆’이라 부르고 있는데, 장대한 土壘라고 할만한 구조물이다. 연변 지역에서는 크게 두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圖們市 서쪽 편인 두도구벌과 延吉 분지의 북쪽 산지에 걸쳐 동서로 이어진 장성과 琿春 평원 북부에 있는 다른 한 줄기의 장성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총 길이가 150km에 달하고 있어³¹⁾ 연변 지역 최대의 방어시설이라고 평가할 만하다.³²⁾

문제는 이 장대한 토루가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구려가 쌓았다고 보는 견해는 연길 淸茶館 부근에서 나온 목단 표본의 연대 측정 결과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³³⁾ 또한 축조방법과 규모에 있어서도 요동의 千里長城과 유

28) 연변박물관<<연변문화유물략전>>집필소조, 「연변문화유물략전」, 연변인민출판사, 1989, pp.33~34.

29) 앞에서 본 동청 유적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차 발굴과정에서 제3호 무덤의 바닥 아래층에서 깊이 90cm되는 곳에서 도기단지와 화살촉 등이 나왔는데, 이 문화층은 무덤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문화층이었고, 거주지로 인정되었다고 한다(연변박물관, 앞의 글, p.2). 이 문화층에 대한 정리는 없었다고 하는데, 옥저인의 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문화층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30) 연변지역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중대형의 고구려 평지성으로는 延吉市 북부에 있는 興安古城(1,800m)·龍井市 八道鄉의 土城屯古城(1,880m)·龍井市 德新鄉의 仲坪古城(1,800m)·琿春市の 溫特赫部城(2,270m) 등이 있다. 이 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지만 河龍古城(985m)에서는 고구려와 그 이전 시기의 유물이 공반되어 나왔다고 한다(「延吉市文物志」). 또한 인접한 곳에는 옥저인의 청동기시대 무덤인 하룡무덤(연길시 장백향 하룡촌 남산 북쪽 기슭)가 자리잡고 있다(연변박물관<<연변문화유물략전>>집필소조, 앞의 책, pp.43~44).

31) 「和龍縣文物志」, 1984, pp.70~71.

32) 혼춘의 장성은 연길 방면의 것에 비해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 흔적이 비교적 잘 남은 구간은 25km 정도에 이른다. 또한 1920년대의 기록에 따르면 본래의 길이는 연길의 장성에 못지 않았다고 한다.

33) 朴龍淵, 「東北地區의 高句麗長城」, 「중국경내 고구려유적 연구」, 예하, 1995 및 金賢淑, 「延邊地域の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2005.

사하다고 보고 있다.³⁴⁾ 연변 장성의 고구려 조성설에 따른다면 고구려 시기 연변 지역의 방어체계는 장성을 둘러놓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연변 지역에서의 고구려 산성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이 문제들 다루어 보고자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축조방향으로 보아 연변의 장성은 북방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고구려 시기 북변의 적대세력이었던 勿吉로부터 연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장성의 조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았던 것은 당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한 대응책이었다. 이들 염두에 둘 때, 물길이 고구려에게 있어서 당에 비견될 만한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5세기 들어서 물길이 세력을 신장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북변에 국한된 역량에 불과한 것이었다.³⁵⁾

또한 연길의 장성은 圖們-延吉-龍井-和龍을 감싸고 있는 긴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변 지역의 유지들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안도 구간이 이 방어선 바깥에 놓여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연변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자체의 방비도 중요하겠지만, 외부로부터의 지원 역시 절실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국내성과의 연결지점인 안도는 우선적으로 방어되어야 하는 요충이었지만, 연길의 장성은 이와 무관해 보인다. 나아가 연길 장성이 대적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아서도 그것이 과연 북쪽에 대한 방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다고 하는 청차관 부근의 성벽을 놓고 볼 때, 북향이 아닌 남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변 지역의 장성은 고구려 시기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연변 지역의 장성이 고구려와 무관하다면, 고구려 시기 이 지역의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산성의 배치에 유의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고구려의 산성으로 확정되고 있는 城子山山城을 중심으로 고구려성일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곽만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城子山山城은 연길시로부터 동쪽으로 10km 떨어진 성자산 위에 있는 산성으로, 부르하통하와 海蘭江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北西南의 3면이 가파른 산등성이로 둘러싸여 있으며, 성 안에는 넓은 평탄지가 펼쳐진 천혜의 조건을 구비한 산성이다. 고구려가 축조하여 발해를 거쳐 遼와 金, 그리고 東夏國 시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하여 준다. 성자산산성은 연길 일대의 지역에서 최적의 거점이자 요해처였던 것이다.

34) 朴龍淵, 앞의 글, 25쪽.

35) 물길의 대두가 고구려의 대외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까닭은 물길 자체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北魏에 편승하여 고구려에 적대하려 했다는 데 있었다(李成制, 「高句麗의 西方政策과 對北魏關係의 定立」, 『實學思想研究』 26, 2004;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2005).

요동 지역의 고구려성과 비교하여 볼 때, 성자산산성은 고구려 中期의 산성에 해당한다. 성벽의 대부분 구간이 산 능선을 따라 먼저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워 덮은 방식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러한 축조방식은 新城으로 비정되고 있는 撫順의 高爾山城에서 보이는 것이다. 고이산성의 축조 시기들³⁶⁾ 놓고 볼 때, 성자산산성은 4세기 초 이후에 축조되었다고 여길 수 있겠다.

고구려 전기의 산성은 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상시적인 군사 주둔지와 거점으로서의 군사적 목적이 우선시되었다. 이에 비해 성자산산성은 성 안에 넓은 평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東北 방향의 두 문이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평지에서 용이하게 산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성의 거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 산성 내에 판청 등이 소재하며 평상시에도 그 지역 지배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성 안의 대지에는 동하국 시기의 궁전터들 비롯한 階段狀整地의 흔적³⁷⁾이 남아 있어 상시적인 거주공간이 성 내부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자산산성의 구조와 기능으로 보아 4세기 초 이후 연길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한편 성자산산성은 인근의 河龍古城과 함께 평지성과 인근 산성의 결합을 보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³⁸⁾ 그러나 성자산산성은 하룡고성과 보완관계라기 보다는 마치 그에 대적하려는 듯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룡고성은 산성에서 12km 떨어져 있는데, 유사시 산성으로 입보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룡고성에서 해란강과 부르하통하를 건너 한참을 우회해야 산성의 동북쪽 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성자산산성의 기능과 관련하여 산성과 하룡고성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끝으로 연변 지역에 위치한 산성의 축조 문제와 관련하여, 두만강 북안에 자리잡고 있는 朝東山城을 살펴 보겠다. 조동산성은 龍井市 富裕鄉 朝東村의 서쪽에 있는 杆王山 정상부에 자리잡고 있다. 산성의 서남쪽 1.5km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고, 강 건너편은 북한의 游仙郡이다. 둘레 길이는 1,502m이며 성벽은 가파른 절벽을 이용하면서도 그 위에 석벽을 쌓아 높이를 높였다. 성 내부의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는데, 전체적으로 평탄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 문지가 2곳 있는데, 동북문의 甕門 구조가 특이하다. 좌우로 퍼진 타원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돌로 축조되어 있다.

연변 지역의 산성에서 석축의 사례가 흔치 않은데, 조동산성은 塊石을 가지런히 쌓아올렸으며 벽체의 내부들 잔돌로 채우는 수법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에 유의된다.³⁹⁾ 특

36) 고이산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4세기 초로 보고 있다(林起煥, 앞의 글, 91쪽).

37) 階段狀整地에는 고구려 시기의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이 곳에 관부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38) 「延吉市文物志」, 방학봉, 앞의 책.

39) 현지에서는 성 남쪽 1.5km에 명대 여진인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누두하치가 쌓은 성이

히 조동산성에서 서남으로 5km 지점에는 雲頭山城(함경도 회령군 성북리)이 있어 육안으로도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동산성은 운두산성과 함께 두만강 兩岸의 평지에서 함경북도의 산간지대로 들어가는 경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운두산성이 함경도 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북단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V. 맺음말

라고 하고, 汗王山山城이라고 부르고 있다.

표 1. 田中俊明의 안⁴⁰⁾

순서	명 칭	소재지	둘레길이와 형태
1	城山子山城	敦化市 紅山鄉 城山子村의 동쪽	2,000m/ 土石
2	五峰山城	安圖縣 長安鄉 五峰村의 북쪽	2,000m/ 土石
3	東四方臺山城	汪清縣 蛤蜊塘鄉 東陽村의 북쪽	5,000m 남짓/ 土·石
4	光興山城	汪清縣 蛤蜊塘鄉 廣興屯의 서북	2,288m/ 土
5	城門山山城	安圖縣 石門鎮 舞鶴村1隊의 남	2,500m/ 石
6	五虎山山城	安圖縣 石門鎮 榆樹川村의 서북	5,000m/ 石
7	城子溝山城	龍井市 桃源鄉 太陽村 城子溝	2,500m/ 土石
8	興安古城	延吉市 興安鄉의 북	1,800m/ 石
9	滿臺城山城	圖們市 石岬鎮 永昌村 滿臺城屯	2,755m/ 土?
10	城子山山城	龍井市 長安鎮 磨盤村 山城里屯	4,454m/ 石
11	亭巖山城	琿春市 凉水鄉 亭巖村의 북	2,800m/ 石
12	通肯山山城	琿春市 春化鄉 蘭家嘴子村의 북	3,000m/ 石
13	城牆砬子山城	琿春市 春化鄉 草坪村의 동	10,000m/ 石
14	干溝子山城	琿春市 哈達門鄉 干溝子溝	2,500m/ 土·土石
15	薩其城	琿春市 楊泡鄉 泡子沿村의 남	7,000m/ 石
16	水流砬山城	琿春市 敦信鄉 水流砬	1,000m/ 石
17	仰臉山城	安圖縣 兩江鎮 小營子屯의 남	1,500m/ 土石
18	八家子山城	和龍縣 八家子鎮의 남	1,500m/ 土石
19	松月山城	和龍縣 富興鄉 松月村의 서남	2,480m/ 土
20	楊木頂子山城	和龍縣 龍水鄉 石園水庫의 동남	2,680m/ 土石·石
21	三層砬山城	和龍縣 勇化鄉의 남	1,000m 남짓/ 石
22	船口山城	龍井市 光開鄉 船口村 五屯의 서북	동남경 1,960m/ 서북경 1,814m
23	金谷山城	龍井市 德新鄉 金谷村의 서	1,415m/ 土
24	葉參砬山城	龍井市 智新鄉 城南村의 서남	1,952m/ 土
25	清水山城	龍井市 三合鎮 清水村 清水洞屯	2,053m/ 동북벽이 二重
26	朝東山城	龍井市 富裕鄉 朝東村의 서쪽 汗王山	1,502m/ 石

표 2. 鄭永振의 안⁴¹⁾

순서	명 칭	소재지 ⁴²⁾	둘레길이와 형태
1	城子山山城	龍井市 長安鎮 磨盤村 山城里屯	4,450m/ 石?
2	興安古城	延吉市 興安鄉의 북	1,800m/ 土石?
3	河龍古城	延吉市 東郊	985m/ 土
4	東興古城	龍井市 光新鄉	
5	土城屯古城	龍井市 八道鄉	1,880m/ 土石
6	仲坪古城	龍井市 德新鄉	1,600m/ 土石
7	溫特赫部城	琿春市 三家子鄉	2,270m/ 土
8	石頭河子古城	琿春市 板石鄉	830m/ 石
9	薩其城	琿春市 楊泡鄉 泡子沿村의 남	7,000m/ 石
10	長城	和龍, 龍井, 延吉, 琿春市	175,000m/ 土, 石, 土石

40) 田中俊明·東潮, 「高句麗の山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1995, pp.381~392 및 p.382의 표 <吉林省の高句麗山城> 참조.

41) 鄭永振, 앞의 글, 393쪽의 표 2를 재정리.

42) 소재지에 대해서는 전종준명의 것이 좀더 자세하여 이것을 따랐으나, 현재의 행정구역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현지 지명도 다른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완성된 글에 반영토록 하겠다.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양정석(수원대학교 박물관)

1. 본고는 문화유적 중에서도 당시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상관관계들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성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고구려와 발해 문화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향후 한국 성곽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토론자는 판방유적에 대한 연구들 전론으로 한 바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것임을 양해 바란다.

2. 우선 본고에서는 연구의 전제로서 기존의 연구가 지방 차원의 성곽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호로고루나 아차산유적과 같은 보루유적을 중심으로 한 전론들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다면 본고의 논지가 보다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한다.

3. 본고에서는 국내성과 책성 간의 교통로 구간이 발해시기의 교통로와 겹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교통로 운용방식을 연속성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서 기존에 발해의 유적으로 생각되어 온 安圖市 東溝유적에 대하여 일부 유구가 고구려계통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유적조사를 담당하였던 발해연구자들은 이 유적을 모두 발해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고, 다만 시기의 차이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설명을 부탁드린다.

4.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문시 서쪽 편인 두도구별과 연길 분지의 북쪽 산지에 걸쳐 동서로 이어진 장성을 고구려가 쌓았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연변지역의 장성은 고구려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고구려의 판방체계들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